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구름은 그분을 감추었으나  
사랑은 그분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 안으로 스며드셨습니다.

올려다보던 제자들의 눈동자 속에  
이제 하늘은 먼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 인간의 상처 입은 육신까지  
성부의 영광 안으로 끌어안으셨고,

남겨진 우리는  
땅 위에서 하늘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5/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0

현재 참가 인원 - 0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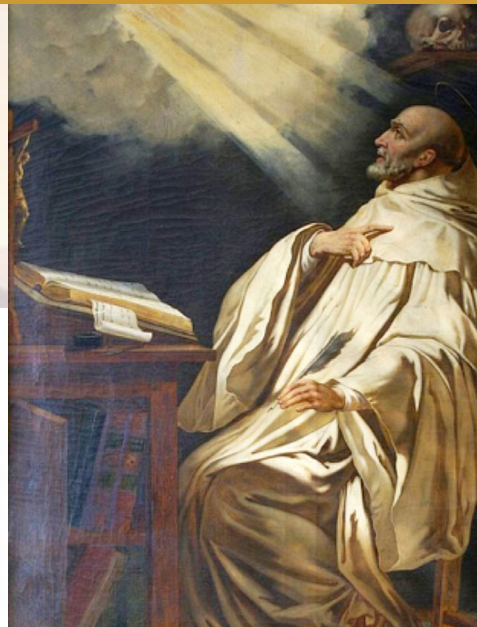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베르나르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구원받은 존재로서 창조하셨다. 그 사랑의 최상의 증거는 말씀의 강생과 구원이다. 그 사랑의 또 다른 증거는 성모님의 발현이다. 성모님은 또한 구원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시토 수도회 출신으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단테 알리기에리,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틴 루터,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그리고 오라토리오회 등 16~19세기 영성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베르나르도(1090~1153)는 전형적인 ‘수도자적 신학’의 사상을 드러낸 인물로 꼽힌다. 그의 신학의 특징은 새로운 유형의 사유를 도출해 내기 보다는 풍부한 내적 경험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서를 참고 자료로 삼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교부들의 수도자 생활 규칙에 관한 저서들, 특히 『베네딕도 규칙서』와 같은 문헌들을 참고했고, 전례 또한 참조하였다. 특히 구원 사업 안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신학적 견해를 드러내 보였던 베르나르도는, 또 『세레론』 등을 통해 성사 신학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수세(水洗)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혈세(血洗)나 화세(火洗)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그 부모의 신앙 덕분에 의화(義化)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그의 수도 신비주의적 사상과 관련하여 “베르나르도의 신학은 하느님께로의 인격적인 상승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의 교의적 가르침과 수도적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생활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그는 수도자들에게 관상 기도에 전념하도록 고무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시토회를 개혁과 확장의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초기 시토회의 개념을 정착시켰다.

## 어머니 사후 시토회 입회

부르고뉴 귀족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디종 근처의 폰텐 성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도는 샤틀롱의 생 보르 학교에서 중세 시기 삼학(三學)으로 불리는 문법·논리학·수사학을 포함한 교육을 받으며, 매력적이고 재치 있으며 학식과 웅변력을 갖춘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1107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의 말처럼 “완전한 회심을 향한 먼 길”을 걷기 시작했고, 1112년 3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시토회에 입회했다. 당시 가장 엄격했던 시토회 규율에 따라 신학적·영성적 교육을 받았으며, 1115년에는 대수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르고뉴와 상파뉴 경계에 있는 클레르보라는 계곡 지역에 수도원을 세우기도 했다. 1115년 살롱쉬르마른의 주교이자 학자인 상포의 기움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베르나르도는 수도원 근처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극도로 절제된 삶으로 공동체를 엄격하게 이끌어 나갔다. 그의 상당수 초기 저술 활동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125년 자립 체계를 갖춘 클레르보 수도원의 원장이 되면서 베르나르도는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에도 클레르보 수도원을 설립했는데, 애정 깊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의 성격은 명성을 불러일으켰고 수도원을 빠르게 확장시켰다.

한편 그는 온유한 성품과는 반대로, 성직자들의 사치와 방종, 또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클레르보 수도원장이 된 후 1130년부터 1145년경까지 베르나르도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원숙하고 활동적인 시기를 보였으며, 당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의 제자였던 교황 에우제니오 3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베르나르도는 제2차 십자군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 설교를 요청받고 십자군의 순수한 의미를 심어 주는 설교를 펼쳤으며, 알비파(Albigenses)에 대항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다.

## 후대 서양 신비학의 기초

사상과 영성 면에서 교회 생활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었던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성 베르나르도는, 당시 출현한 초기 스콜라 학파의 변증법적 방법에 맞서 성서와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수도자였으며, 직관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또 금욕적이고 전례적인 전통과 강하게 연결된 인물로 평가된다. 생 모르(Saint-Maur) 학파의 대표적 전기 작가인 마비용(J. Mabillon)은 베르나르도에 대해 “마지막 교부이지만 첫 번째 교부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남긴 바 있다.

무엇보다 그의 논문에 나타난 신심과 신비주의는 후대 서양 신비학의 기초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학파에서는 성 베르나르도의 그리스도 중심적 노선을 수용하였고, 17세기 프랑스 학파는 베르나르도 신학의 기초적 노선과 깊은 연관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신학자들과 설교가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에게 미친 영향 역시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엄격한 고행과 지병으로 체력 소모가 컸던 베르나르도는 1153년 8월 20일 클레르보에서 선종하였으며, 1174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그리고 1830년 교황 비오 8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언되었고, 교황 비오 12세는 성인의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여 1953년 5월 24일 「꿀처럼 달콤한 박사」라는 뜻의 『Doctor Mellifluus』를 발표한 바 있다.

**공지 사항**

**1 시노드 4번째 모임**

● 일시 : 5/17(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 주제 :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네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5/17(주일)  
● 음식 봉사 : Sammamish 구역  
● 메뉴 : 콩나물 오징어 덮밥  
각 구역원들은 서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예비 신자 교리반 모임**

새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6월에 시작하여 7개월의 준비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가까운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 교리반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리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 일시 : 5/17(주일) 오전 10:00 교중 미사 후  
● 장소 : 101호실

**4 베드로회 월례 모임**

● 일시 : 5/17(주일) 오전 8:00 미사 후  
● 장소 : 110호실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역장 회의**

● 일시 : 5/24(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메모리얼 데이 미사**

● 일시 : 5/25 (월) 오후 1:00  
● 장소 : 홀리루드 묘지  
205 NE 205th St, Shoreline, WA 98155

**7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9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 에페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41	예물 준비 성가 : 215, 512	성체 성가 : 151, 153	파견 성가 : 137
-------	-------------	---------------------	------------------	-------------

부활 제6주일 (5/10)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9명	72명	215명	153명	41명	530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5/28/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60차 홍보 주일 담화 (2026년 5월 17일)

##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이고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은 얼굴과 목소리 때문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저마다가 지닌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정의하면서 ‘얼굴’(prosopon)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어원에 따르면 얼굴은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곧 현존과 관계의 자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하여 소리 남’을 뜻하는 페르소나레 [per-sonare]에서 유래한) 라틴어 낱말 ‘페르소나’(persona, 개인)에는 소리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불특정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독특한 목소리 말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당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며 얼굴과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이 말씀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울려 퍼졌고 이윽고 때가 차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이 소통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와 얼굴로 우리에게 알려졌기에 이 말씀을 직접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1요한 1,1-3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인간이 당신의 대화 상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처럼,1) 그분께서는 우리의 얼굴에 하느님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을 새겨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 본성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일은 이 인장(印章), 곧 이 지울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반영을 보존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종(種)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대신할 수도 따라 할 수도 없는 고유한 소명을 지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 자신의 생생한 체형에서 비롯되고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이 임무

를 다하지 못할 때,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 온 인간 문명의 중요한 기둥들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 기술이 완전히 바꾸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인공 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와 지식, 인식과 책임감, 공감과 우정을 흉내 냄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소통인 인간관계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전은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인간 학적인 도전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 지능이 제공하는 기회를 용기와 결단력을 지니고 식별하며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중대한 문제, 복합적 요인, 위험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생각하는 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셜 미디어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플랫폼의 수익성을 위하여- 설계된 알고리즘은 즉각적 감정에는 보상을 주지만, 이해와 성찰을 위한 노력처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인간적 반응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손쉬운 동의와 분노의 버블(bubbles)\*에 따라 사람들을 무리 지어,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 지능을 모르는 것이 없는 전 지적인 ‘친구’, 모든 지식의 원천, 모든 기억의 보관소, 온갖 조언을 주는 ‘신탁’처럼 여기는 순진하고 무비판적인 의존 때문에 더 만연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분석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형식과 의미를 구분 짓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 지능 시스템은 글, 음악, 영상 제작에서 점점 더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당수 인간의 창의적인 산업이 해체되어 ‘인공 지능 기반’(powered by AI) 제작이라는 표지로 대체될 위험에 놓이며,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 생각이 아닌 생각들과 익명의 저작물들을 주인 의식이나 사랑 없이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 탈바꿈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음악, 미술, 문학 분야에서 인간의 천재성이 빛어낸 걸작들

은 그저 기계들의 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사용하여 인간성과 지식을 증진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헌신과 연구와 개인 책임이 수반되는 노력 없이도 지식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늘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을 포기하고 우리의 두뇌 역량과 상상력을 기계에 맡겨 버리면 우리 개개인이 하느님과 또 다른 이들과 이루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받은 재능은 사장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 존재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척인가: 관계와 실재의 시뮬레이션

피드(feed)를 스크롤 할 때 우리는 다른 인간 존재와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의 ‘봇’이나 ‘가상 인플루언서’와 소통하고 있는지 식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주체들의 투명성 떨어지는 개입이 공공의 논의와 대중의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에 기반한 챗봇은 개인 맞춤형 상호 작용의 끊임없는 최적화를 통하여 은밀한 설득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이 지닌 대화하고 각색하며 모방하는 구조는 인간의 감정들을 따라하여 관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화는 재미를 줄 수 있지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다운’ 챗봇들은 언제나 곁에 있어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 상태의 숨은 설계자가 되어 우리의 내밀한 영역을 침범하고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의 욕구를 악용하는 기술은 개개인의 창조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구분되는 타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나 우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 시스템이 제기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은 편향의 문제입니다. 이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전하게 이끕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그 설계자들의 세계관에 따라 형성되고, 나아가 활용 데이터에 담긴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여 똑같은 사고방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실로 막대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위력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한 평행 ‘현실’을 만들어 우리를 현혹할 수 있을 만큼 큼니다.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다차원 환경의 세계 안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부정확성은 이 문제를 키우기만 합니다. 통계적 확률을 지식이라고 제시하는 시스템은 기껏해야 진실에 대한 근사치만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때로는 우리를 명백히 기만합니다. 출처 검증 실패가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꾸준한 정보 수집과 검증을 포함한 현장 조사의 위기와 맞물리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불신과 혼란과 불안의 감정이 자라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 동맹의 가능성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배후에는 극소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기업 설립자들은 ‘2025년 올해의 인물’에 이름을 올린 크리에이터로, 곧 인공지능의 설계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알고리즘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독점적 장악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흔히 우리가 실제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이러한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인간 행동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교회사는 물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디지털 혁신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그 혁신을 잘 인도하고 그 양명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우리 저마다의 몫입니다. 그려면 이 도구들을 참으로 우리의 동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과 협력과 교육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정직, 투명성, 용기, 해안, 지식 공유의 의무, 알 권리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건설해 나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최고 책임자들이, 저마다 자녀들의 안녕을 돌보듯이, 그들의 기업 전략도 분명히 윤리 극대화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인 전망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국가 입법자들과 초국가적 규정 결정을 맡은 이들에게도 같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적절한 규제는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고, 거짓되거나 조종하거나 호도하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아 기만적인 시뮬레이션에 맞서 정보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몇 초 더 시선을 끌려고 고안된 알고리즘들이 진실 추구라는 기업들의 직업적 가치보다 우세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신뢰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투명성으로 얻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언론인과 그 밖의 콘텐츠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보는 공공재입니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공공 서비스는 출처의 투명성, 관련자들의 참여, 그리고 높은 품질 기준에 기반하는 것이지 불투명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협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부문도 단독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거버넌스(AI Governance)\*의 운영이라는 도전을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기술 산업부터 입법자까지, 창작 기업부터 학계까지, 예술가부터 언론인과 교육자까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 출처가 믿을 만하지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정보의 선택 뒤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정, 공동체, 단체들이 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의 문화를 위한 실질적 기준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몇몇 시민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교육 체계 전반에 매체와 정보와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literacy) 교육을 도입하는 일이 점점 더 시급해집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이러한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려면만 개개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얻고 더 큰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력 교육은 그 폭을 넓혀 평생 교육 사업에도 포함되어, 급격한 기술 변화 앞에서 흔히 배척당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노년층과 사회의 소외 계층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매체와 정보와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은, 개개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인화 추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도구로 다루며, 언제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공하는 부정확하거나 틀릴 가능성이 있는 출처에 대하여 외부 검증을 활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문해력은 보안 기준과 불만 제기 옵션들에 관한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사생활과 데이터를 더욱 잘 보호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동의 없이 사생활이나 친밀한 관계를 침해하는 디지털 사기,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딥페이크 등의 유해 콘텐츠 제작이나 행위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이미지(사진과 음성), 얼굴과 목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게 할 기초 문해력을 산업 혁명이 요구했듯이, 디지털 혁명 또한 (인간적, 문화적 소양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지, 인공지능의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작동 기제 때문에 우리의 피드에 특정 콘텐츠가 보이는 것인지, 인공지능 경제에 어떤 경제 원칙과 모델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선물을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진리로서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모든 기술 혁신도 그러한 진리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찰을 제시하며, 앞서 말한 목적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매체를 통하여 공동선에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전합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레오 14세 교황